

경향신문

‘원반 던지는 아이’ 사진 본 AI ‘엑사원’이 한 말

입력 2022.06.19. 오전 11:13 수정 2022.06.19. 오전 11:52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엑사원에게 원반 던지는 아이 사진(왼쪽)을 보여주자 엑사원이 이를 문장으로 설명했다. 이어 ‘강물과 일몰 풍경’이라는 글을 보여주자 엑사원이 이와 관련한 이미지(오른쪽)를 만들어 냈다. LG 제공.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게 원반 던지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엑사원이 ‘한 소년이 푸르른 공원에서 녹색 플라스틱 원반을 던지고 있다(A young boy throwing a green frisbee in a lush green park)’는 문장을 만들어 냈다. 이어 엑사원에게 ‘흐르는 강물과 일몰 풍경(A sunset view with the river)’이라는 글을 보여 주자 이번에는 엑사원이 해질 무렵의 강가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그려 보여줬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은 언어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멀티모달(multi-modality) 기능을 갖춘 초거대 AI이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하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의 멀티모달 AI는 전 세계에서 엑사원이 유일하다. 예컨대 카카오의 초거대 AI ‘RQ-트랜스포머’는 글을 보고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지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하지 못한다.

LG AI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인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엑사원의 멀티모달 AI 핵심 기술과 관련한 단독 연구 논문 등 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멀티모달 관련 논문 등 2편이 CVPR의 구두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두 발표 기회는 학회에 제출된 논문 중 4% 이내에 해당하는 최상위 평가를 받은 연구에만 부여된다.



지난 2월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 AI 아티스트 ‘틸다’가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해 ‘금성에 핀 꽃’이란 주제로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을 만들어 냈다. 한 모델이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LG 제공.

앞서 LG AI연구원은 초거대 AI ‘엑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AI 아티스트 ‘틸다(Tilda)’를 만들어 냈다. 틸다는 올해 초 뉴욕 패션 위크에서 박윤희 디자이너와 협업해 ‘금성에 핀 꽃’이라는 주제로 3000장이 넘는 이미지와 패턴들을 창작하고, 200개가 넘는 의상들을 선보였다. 당시 박윤희 디자이너는 “틸다에게 ‘금성에 핀 꽃을 그려줘’ 했는데 틸다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영감을 나한테 줬다”며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그려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엑사원의 멀티모달 기능은 패션 외에도 IT·교육·유통·의료·VR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설립된 LG AI연구원은 올해 연구 인력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대·캐나다 토론토대·미국 미시간대 등 국내외 대학·연구기관들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향후 글로벌 AI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세계적인 AI 학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4058>
